



포털과 지역혐오

네이버 범죄뉴스의 지역혐오댓글에 대한 내용분석

양혜승 경성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부교수**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이 온라인에 난무하고 있다. 이에 포털사이트 범죄뉴스에서 지역혐오댓글의 비율을 파악하고, 표적지역은 어디인지를 고찰했다. 아울러 지역혐오댓글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 유형 분포가 표적지역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도 살펴보았다. 2017년 네이버뉴스에 게재된 기사 중에서 범죄기사 687개를 추출하고 거기에 달린 전체 댓글 20,419개를 내용분석했다. 그 결과, 지역혐오댓글은 850개, 전체의 4.16%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중 64.4%는 전라도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지역혐오댓글의 유형으로는, 해당 지역이나 지역민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언급하는 유형(스테레오타이핑)이 많았다. 이어 단순히 지역명만 거론하며 부정적 뉘앙스를 전달하는 유형(지역단순명기), 사투리·흉내·비아냥·반어법 등을 동원해 해당 지역을 조롱하는 유형(조롱하기), 해당 지역을 뭔가 다른 곳으로 취급하는 유형(분리하기), 해당 지역이나 지역민에 고유한 이름을 붙이는 유형(라벨링)이 뒤를 이었다. 전라도 지역에 대한 혐오댓글의 경우 지역단순명기와 조롱하기 유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번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논했다.

핵심어: 포털뉴스, 댓글, 혐오표현, 지역, 내용분석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5A2A01025246). 이 논문은 2018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hsyang@ks.ac.kr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우리 사회에 각종 혐오표현이 확산되는 추세다. 여성, 남성, 성소수자, 이주민, 특정 지역 등 표적집단도 다양해지고 혐오표현의 강도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표적집단에 따라 각 혐오현상의 사회문화적 근원은 다소 다르지만, 혐오표현의 확산과 심화는 사회의 결속을 저해하고 사회구성원 간 갈등과 반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우려를 낳는다.

우리 사회에서 혐오 발화 행위의 많은 부분은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난다. 인스턴트 메신저나 이메일 등 일대일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특히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다(윤하나, 김상호, 2018). 홍성수 등(2016)에 따르면 온라인 뉴스나 영상의 댓글에서 혐오표현을 접하는 경우(78.5%)가 가장 많고,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 댓글(73.7%), 페이스북 댓글(73.3%), 블로그 댓글(60.1%) 등에서도 혐오표현을 흔하게 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번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 포털뉴스에서 관찰되는, 특정 지역과 관련한 혐오댓글이다. 실제로 포털뉴스의 댓글들에는 특정 지역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이 난무하고 있다. 비이성적이고 근거 없는 지역혐오표현의 배설구가 되어 가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혐오를 담은 댓글이 빈번하게 관찰되는 대표적인 곳은 범죄뉴스다. 사실 포털뉴스 중에서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뉴스는 대체로 중앙의 소식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 지역이 부각되는 뉴스는 그 수량 자체가 몹시 제한적이다. 하지만 사회 분야, 특히 범죄뉴스에서는 사건·사고 뉴스의 속성상 범죄의 발생지역이 거의 빠짐없이 뉴스에 부각되어 등장한다.

기본적으로 범죄는 사회의 안전을 해치고 불안을 야기하는 반사회적 일탈이다. 따라서 범죄뉴스 댓글에 범죄의 흉악성에 대한 비난, 혹은 해당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개인에 대한 질책이 등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그런 댓글은 사회구성원들의 경각심을 더욱 일깨우고 도덕적 재무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온라인 공간을 사회적 공론장으로 일구어나가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부 댓글은 범죄 행위 혹은 행위자 개인에 대한 비난과 질책을 벗어나 범죄가 발생한 지역 혹은 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비이성적이고 근거 없는 부정적 일반화를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곤 한다.

물론 우리 사회에 범죄가 유독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따로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범죄는 특정 지역에서만 배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모든 지역에서 범죄는 발생한다. 흉악범죄가 특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양혜승, 2018 참조). 하지만 수도권과 비교해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일 경우 유독 거침없는

지역혐오가 댓글공간을 지배하곤 한다. 특히 전라도를 비롯한 특정 지역이 혐오의 주된 표적이 되어 있음을 경험적으로 목도할 수 있다. 많은 댓글들이 “그 지역은 유독 그런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거나 “역시 또 그 지역”이라는 근거 없는 편견을 담고 있는가 하면, 해당 지역이나 지역민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용어(예: 전라도에 대해 ‘홍어’, ‘7시’ 등으로 표현하는 것) 또한 즐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털뉴스 댓글에 투영된 지역혐오의 양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유형화한 연구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사실상 포털뉴스 댓글로 범위를 좁히지 않고 다양한 온라인 공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고 치더라도 지역혐오표현 실태를 고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우리 사회 포털의 범죄뉴스에 지역혐오댓글이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 지역혐오댓글이 어떤 지역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지, 어떤 유형의 범죄사건에 지역혐오댓글이 더 많이 달리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덧붙여 지역혐오댓글을 내용 유형에 따라 분류해보고, 이 유형 분포가 표적지역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도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동안 심증으로만 혹은 피상적인 경험으로만 언급되었던, 포털뉴스 댓글공간에서의 지역혐오 현상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드러내고 그 심각함을 공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연구는 네이버뉴스에 게재된 범죄뉴스를 표집하고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내용분석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가 포털뉴스, 특히 네이버뉴스에 주목한 것은 국내의 뉴스 이용 실태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저널리즘연구소가 내놓은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7〉에 따르면, 한국에서 뉴스 이용을 위해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비율이 84%로 텔레비전 73%, 종이신문 26%, 라디오 12%를 능가하고 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이처럼 각종 조사결과에서 모바일이나 PC 등을 통한 뉴스 이용이 전통적인 미디어를 통한 뉴스 이용을 넘어섰으며, 그러한 변화는 포털뉴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네이버의 지위는 독보적이어서 국내 수용자들이 뉴스나 시사정보를 이용하는 인터넷뉴스 출처로 65.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8).

2. 이론적 논의

1) ‘혐오표현’에 대한 논의

이 연구가 포털뉴스 댓글의 지역혐오표현을 분석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혐오표현’이라는 개념을 먼저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이 개념은 영어의 ‘hate speech’에 대응하는 용어인데 그간 학계에

서 다양한 용어로 번역해온 것이 사실이다(김민정, 2014). 예를 들어 ‘hate’를 ‘증오’나 ‘적의’로 해석하기도 하고, ‘speech’를 ‘언론’, ‘언설’, ‘발언’ 등으로 번역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혐오표현’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는 추세다(홍성수 등, 2016; 김민정, 2014; 김현경·박보람·박승환, 2012 참조).

혐오표현의 개념적 정의에 대해 보편적 합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각국의 법률상으로도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홍성수, 2015). 홍성수 등(2016)에 따르면 혐오표현은 “어떤 개인·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혐오하거나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정의된다(21쪽). 이러한 범주에는 소수자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괴롭히는 표현, 차별·혐오를 의도·암시하는 표현, 소수자를 멸시·모욕·위협하여 인간존엄을 침해하는 표현, 차별·적의·폭력을 선동하는 표현 등이 포함된다.

우리 사회에서 혐오표현이 문제가 된 것은 소위 일베(일간베스트)가 사회문제가 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라고 볼 수 있다(홍성수 등, 2016). 이를 기점으로 혐오표현과 관련한 연구들이 다수 등장했는데 크게 두 갈래로 분류해볼 수 있다. 첫 번째 갈래는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 찬반을 둘러싼 논의를 다룬 법학 관련 연구들이다(김민정, 2014; 노재철·고준기, 2016; 박용숙, 2018; 박지원, 2016; 박혜영, 2015; 이승현, 2016; 이정남, 2016; 이주영, 2015). 혐오표현은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많은 논의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이에 기존의 법학 관련 연구들은 해외의 입법 및 규제 사례들을 소개하거나 이를 한국 상황에 적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두 번째 갈래는 우리 사회의 각종 혐오표현들을 분석하여 그 실상을 제시하는 형태의 연구들로, 주된 표적집단은 여성,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다. 혐오표현의 문제는 온라인 공간의 발전과 더불어 심화되는 추세이기에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나 포털사이트 등에서 어떤 혐오표현이나 담론들이 전개되고 있는지 그 실상을 분석하는 형태를 취한다(김수아, 2015; 장소연, 2017; 한기덕, 2017; 한희정, 2016). 이번 연구는 이 두 번째 갈래의 연구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겠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기존 연구사례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한희정(2016)은 다음(Daum)의 토론공간 아고라에서 이주여성과 관련한 글과 댓글을 담론분석하고 텍스트에 담긴 감정을 분석했다. 해당 연구는 2011년 이후 아고라에서 올라온 이주여성 관련 글 대부분이 혐오담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의 결론은 크게 다섯 가지였다. 첫째, 많은 글들이 이주여성을 매춘과 연관시키면서 과도한 혐오감을 드러냈고, 둘째, 한국남성을 희생자로 간주하면서 이주여성에 대한 증오감을 표출했다. 셋째, 혐오 혹은 분노 표현의 정당성을 위해 정의, 평등, 국가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며, 넷째, 혐오감정을 확산시키는 데 주로 활용되

는 것은 국제결혼 사기사건, 외국인 노동자 범죄보도 등이며, 다섯째, 온정의 감정을 담은 글 또한 관음주의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기덕(2017)은 네이버(Naver)뉴스 댓글들에서 외국인노동자와 조선족과 관련해 어떤 혐오 어휘들이 등장하는지를 분석했다.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수집된 단어들을 보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는 '인종', '동남아', '이슬람', '테러'와 같은 인종문제, 그리고 '돈', '일', '일자리', '임금', '공장', '경제', '기업'과 같은 경제적 문제를 중심으로 빚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선족에 대한 혐오는 '토막', '강간', '사형', '차별', '성폭행'과 같은 표현이 중심이 되어 있었다.

김수아(2015)는 여성혐오표현의 양태를 고찰하기 위해 일간베스트, 엠엘비파크, 디씨인사이드 등의 커뮤니티 사이트의 게시물과 네이버, 다음, 네이버 등의 주요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들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온라인 공간에 다양한 유형의 여성비하 및 편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표 1>은 그 유형의 특징과 사례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온라인상 여성혐오표현의 유형과 특징

구분		특징	사례
비하 편견의 내용	외모	비만 성형 등이 주요 비하 내용, 한국 여성이 외국 여성보다 못하다는 내용	똥녀, 오크녀, 성괴, 꺾뺨지 등
	성과 여성성	성기와 관련된 욕설(신조어), 여성의 성적 자율권에 대한 침해	보슬아치, 갈레, 좆집, 정액받이
	나이	여성이 특정 나이 때에만 가치가 있다는 생각	상페녀
	능력	한국 여성의 능력 비하, 직장에서의 무능, 운전과 같은 특정한 영역의 무능	김여사
표현 수준	신체에 대한 폭력적 표현	살해, 폭력을 직접적으로 기술	삼일한
	성 폭력 표현	강간 위협, 성기에 대한 폭력	일반화된 강간 표현들

출처: 김수아 (2015).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페미니즘 연구>, 15권 2호, 292~293쪽에서 인용.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2) 지역혐오표현과 낙인이론

사실 기존의 국내 연구 중에서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을 집중적으로 고찰한 경우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수도권과 대비되는 '촌'으로서의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 그리고 전라도를 비롯한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것은 아이러니라 하겠다.¹⁾ 실제로 국내 신문, 방송, 책 등 미디어에 등장하는 혐오표현을 모아 그 유형을 정리한 이종일(2017)의 연구는 표적집단으로

1) 국내의 학술데이터베이스 DBpia에서 '지역혐오'를 키워드로 입력하면 양혜승(2018)의 연구 단 한 편만이 검색됨. 띄어쓰기를 하고 '지역 혐오'를 키워드로 입력하면 혐오시설과 지역이기주의, 즉 남비현상과 관련된 논문들이 함께 검색되는데 그치는 실정임.

이주민, 남성, 여성, 장애인, 임신부, 성소수자, 기성세대 등을 다루었을 뿐이다. 지역혐오표현에 대한 고찰은 고려되지 않았다. 혐오표현 경험 실태를 설문조사한 홍성수 등(2016)의 연구에서도 표적집단으로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이라는 네 집단만을 고려했을 뿐이다. 특히 위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로 발간되었다는 점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김종구, 2017 참조). 전라도 사람을 '흥어', 5·18광주민중항쟁 희생자들을 '흥어무침'이라고 비아냥대는 잔혹한 혐오표현이 존재하는 것이 온라인의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김종구, 2017).

그나마 온라인의 지역혐오표현을 정리한 경우가 장소연(2017)의 연구에서 발견된다. 위 연구는 일간베스트와 메갈리아 등 커뮤니티 사이트의 게시물을 통해 정치인, 지역,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에 대한 혐오표현들을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일간베스트의 인기글에 담긴 지역혐오 관련 용어도 함께 정리했다. <표 2>에서 보듯 지역혐오를 드러내는 용어는 17개가 수집되었는데 전라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 11개였다. 따라서 일간베스트의 지역혐오는 전라도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표 2.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들

용어	설명
감자	강원도 지역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
감자국	강원도 지역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
감지도	강원도 지역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
멍청도	충청도 지역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
개쌍도	경상도 지역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
통들통들	통구이와 부들부들의 합성어로, 경상도 지역 사람들이 떠는 모습을 빗대어 표현
흥어	전라도 지역 사람을 비하하는 말
라도	'전라도'의 줄임말로, 전라도 지역 사람을 비하하는 말
전라디언	전라도 지역의 사람을 비하하는 말
7시	지도상 전라도의 위치가 7사라는 것을 빗대어 전라도를 지칭함
알보칠	'알고보니 7시'의 줄임말로, 지도상 전라도의 위치가 7사라는 것을 빗대어 전라도를 비하하는 말
까보전	'까고 보니 전라도 사람'의 줄임말로, 전라도 지역 사람을 비하하는 말
설라디언	전라도 출신이나 현재는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
탈라도	'탈 전라도'라는 의미로, 전라도 지역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경우에 사용
쩌름쩌름	전라도 지역의 사람을 비하하는 말로, 흥어 냄새가 난다는 표현
네다흥	'네, 다음 흥어의 줄임말로, 흥어는 전라도 지역 사람을 칭하는 속어
흥들흥들	흥어와 부들부들의 합성어로, 전라도 지역 사람들이 떠는 모습을 빗대어 표현

출처: 장소연 (2017).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혐오의 문화정치>,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0~51쪽에서 인용. 원 저작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우리 사회에는 서울지역에서 먼 지역일수록 해당 지역에 대한 차별적 언어가 더 많이 존재하는 경향이 있고, 1990년대 이전부터도 다양한 표현들이 존재해왔던 것은 사실이다(지역차별적인 언어에 대한 정리는 이정복, 2013 참조). 물론 일상에서 관찰되는 지역차별이나 소외는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기회 확대와 더불어 지역에 대한 반감, 특히 전라도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는 표현은 과거보다 더 다양해지고 심각해졌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이후 일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각종 혐오표현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것과는 궤를 함께 한다고 보겠다.²⁾ 다음은 장소연(2017)이 제시한, 전라도를 대상으로 한 지역혐오 게시물 사례들이다.

“진심 라도 △△들은 거짓말을 왜이리 하는거야”

“△△ 흉어들 멸종시키는 방법 없냐?”

“선동을 할 수 있다면 지 애미, 마누라도 팔 종자들이 바로 흉어임. 진실? 정의? 그렇게 포장만 할 수 있다면 거짓, 날조, 왜곡도 천연덕스럽게 하는 게 흉어다. 씨를 말...”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은 해당 지역 혹은 지역민을 다른 지역으로부터 구분 짓고 차별하며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덧씌우고 있다는 점에서 ‘낙인’(stigma)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원래 그리스어인 낙인은 범죄자나 노예의 살갓을 찢거나 태운 표식으로 해당 표식을 가진 개인의 흠결과 도덕적 불명예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Goffman, 1963). 고프만(Goffman, 1963)의 정의에 따르면 낙인이란 “완전하고 보통의 사람으로부터 더럽고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으로 격하시키는” 몹시 불명예스러운 상징이다(p. 3). 사회적 낙인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 신체불구처럼 신체적 속성에 기인하는 낙인, 둘째, 정신질환, 중독처럼 개인 인격의 오점으로 인식되는 낙인, 셋째, 인종·성·종교·국적처럼 개인의 종족(tribe) 혹은 출신에 기인하는 낙인이 그것이다(Goffman, 1963).

실제로 사회적 소수자 혹은 약자들에 가해지는 사회적 낙인 현상을 많은 연구들이 규명해왔다. 신체장애인(Cahill & Eggleston, 1995), 비만인(Puhl & Heuer, 2009), 정신질환자(Coggigan, 2004; Link, Struening, Neese-Todd, Asmussen, & Phelan, 2001), 성소

2) 지역차별표현과 지역혐오표현이 동일한 개념인가 하는 점은 보다 정밀하게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이정복(2013)이 지역차별적 언어로 정리한 내용은 최근 연구들이 제시하는 지역혐오표현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음. 지역차별표현을 지역혐오표현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됨.

수자(Balsam & Mohr, 2007; Herek, Gillis, & Cogan, 2009)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했다. 국내에서도 임인숙과 김민주(2012)는 한국의 다이어트 방송프로그램에 녹아있는, 비만인에 대한 낙인 개념을 고찰한 바 있다. 오미영(2009)은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혼혈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태도를 낙인 개념을 통해 조사하기도 했다.

고프만(Goffman, 1963)의 낙인 유형을 적용해보면,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은 기본적으로 세 번째 유형의 낙인, 즉 개인의 출신과 관련해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이 특정 지역의 출신인 것은 개인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개인을 보통의 사람과는 다른 사람으로 격하시키는 것은 사회적 살인에 가깝다. 더군다나 범죠티스의 댓글에는 특정 지역 혹은 지역민에 대한 일반화된 낙인이 퍼져있는 것이 현실이다. 살인사건이든 절도사건이든 그 지역에서는 당연히 일어날만한 일로 간주되고, 그 지역 출신은 그런 일을 벌이고도 남을 사람으로 간주된다. 심지어는 서울에서 일어난 범죄의 경우 그 범죄자가 알고 보면 특정 지역 출신일 거라는 근거 없는 표현마저 등장하는 것이 현실이다.

3) 혐오표현을 담은 댓글의 효과

사회비교(social comparison)이론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의견이나 능력을 다른 사람과 견주거나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Festinger, 1954 참조). 그런데 실생활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능력을 기늡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 경우 개인들은 주변의 타인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는 것이다. 온라인뉴스의 댓글을 읽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가정은 쉽게 적용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남겨놓은 댓글들은 자신과 타인의 의견을 비교해볼 수 있는 중요한 참조틀이 될 수 있다. 댓글공간은 타인의 반응을 참조하고 나아가 여론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경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 조사결과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한국언론진흥재단(2018)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지난 일 주일 동안 포털뉴스 댓글을 읽은 경험이 있다는 경우는 70.1%에 이르렀는데, 댓글을 읽는 이유로는 기사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80.4%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해당 이슈를 해석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55.8%밖에 되지 않았다(중복응답).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댓글을 읽는 이유는 다른 사람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온라인뉴스 댓글공간이 제대로 된 공론장으로 기늡할 수 있을 만큼 고품질의 댓글로 채워져 있는가 하는 점이다. 안타깝게도 온라인뉴스의 댓글을 내용분석한 결과들에 따르면 소위 악성 댓글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 김병철(2004)은 오마이뉴스 기사 댓글을 분석

했는데, 존대말을 사용하는 댓글(26.4%)보다 반말을 사용하는 댓글(44%)이 더 많으며, 비속어·비방·욕설·인신공격과 같은 언어폭력적 댓글이 전체의 29.7%에 이른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박창호(2012)는 다음(Daum)과 조선닷컴 기사 댓글 1,200여개를 분석했는데, 근거를 제시하며 차분히 설명하거나 사건의 이해에 필요한 정보와 대안을 담은 이성적 댓글은 전체의 28.1%에 불과한 반면, 근거가 없이 흥분·분노·좌절 등 감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욕설 및 거친 어조를 지닌 비이성적인 댓글은 전체의 71.9%에 달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한 일간지의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3개 주요 포털사이트의 댓글 중에서 14.3%가 악성 댓글이며, 그 중 욕설과 협박이 6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용석·김창덕, 2009).

뉴스 댓글 읽기는 해당 이슈와 관련된 지각이나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강재원·김선자, 2012; 김은미·선유화, 2006; 양혜승, 2008; 여은호·박경우, 2011; 이은주, 2011; 이은주·장운재, 2009).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는 언어폭력적이거나 비이성적인 댓글 또한 개인들의 지각이나 태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양혜승(2008)의 실험연구는, 논리적 근거가 약하고 상스러운 어투를 사용하는 저품질의 댓글마저도 해당 이슈와 관련된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때로는 품질이 높은 댓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감정에 치우치고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담은 메시지에 수용자는 오히려 더 주목을 하게 되고, 이 주목으로 인해 더 많은 정보가 부호화되고 저장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역혐오를 담은 댓글 또한 같은 맥락에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지역혐오를 담은 댓글은 악성댓글, 언어폭력적인 댓글, 비이성적인 댓글의 총체적 결합체라고 볼 수 있다. 타인의 의견을 참조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접하는 뉴스 댓글 속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개인들은 그러한 혐오표현들을 부지불식간에 학습하게 되고, 아울러 특정 지역에 대한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을 꾸준히 강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4) 지역혐오댓글의 유형

이번 연구에서는 댓글 속에 담긴 지역혐오표현의 특성에 따라 댓글들을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해 보려 한다. 먼저 홍성수 등(2016)의 연구에 포함된 혐오표현의 유형을 참조할 만하다. 위 연구는 혐오표현 유형을 ①차별적 괴롭힘, ②차별표시, ③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④중요 선동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표 3〉 참조). 하지만 위 연구에서도 이 유형화가 언제나 날카롭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혐오댓글을 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내기에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표 3. 혐오표현의 유형

유형	내용
차별적 괴롭힘	차별적 속성을 이유로 소수자(개인/집단)에게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차별표시	차별·혐오를 의도·암시하는 내용의 표현행위
공개적인 멸시·모욕·위협	공개적으로 소수자(개인/집단)를 멸시·모욕·위협하여 인간존엄성을 침해하는 표현행위
증오선동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조장·선동하는 증오 고취 행위

출처: 홍성수 등 (2016),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6쪽에서 인용. 원 저작편지의 모든 권리가 보호됨.

이에 앞서 다루었던 ‘낙인’(stigma) 관련 연구에서 참조할만한 틀을 빌려와보고자 한다. 고 프만(Goffman, 1963)의 논의 이후 낙인 개념이 학문적으로 활발하게 다루어지긴 했지만, 이 개념이 사회학, 인류학, 정치학 등에서 다양하고 상이한 방식으로 설명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Link & Phelan, 2001). 따라서 링크와 펠란(2001)은 낙인 개념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소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낙인의 구성요소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바로 ①라벨링(labeling), ②스테레오타이핑(stereotyping), ③분리하기(separation), ④지위 박탈하기(status loss), ⑤차별하기(discrimination) 등이다.

낙인의 구성요소 중에서 몇 가지는 지역혐오댓글을 유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라벨링’이란, 쉽게 말해 차이를 특징짓고 이름붙이는 것이다.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그다지 크지 않은 차이를 부각시키고 과도하게 단순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전라도를 ‘홍어’, ‘7시’라고 비하하는 댓글들은 새로운 용어를 통해 특정 지역을 라벨링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스테레오타이핑’이란 차이를 부정적인 속성과 결부 짓는 것으로 낙인 효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을 위험한 사람이라고 연결시키는 것이 대표적인 스테레오타이핑 사례다. 예를 들어, 전라도 사람들은 원래가 폭력적이라거나 거짓말을 잘한다는 내용의 지역 혐오댓글이 이런 스테레오타이핑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분리하기’란, 부정적인 특성을 가진 그들(them)을 우리(us)와는 다르다고 구분 짓는 것이다. 그들을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로 구분함으로써 스테레오타입은 더욱 쉬워지고 우리의 죄책감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전라도지역에서는 범죄가 유독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전라도를 독립시켜 따로 살게 만들어야 한다는 댓글들이 흔하게 달리곤 한다. 전라도 관련 기사는 외국기사로 취급해야 한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한다. 분리하기의 사례라고 보겠다.

한편 ‘지위 박탈하기’와 ‘차별하기’는 앞선 세 가지 구성요소들로 인해 발현되는 행동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 ‘지위 박탈하기’는 사회 내 위계구조에서 그들을 하단에 위치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차별하기'는 행동으로 차별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지역차별 혹은 지역혐오를 내포한 표현들은 우리 사회에 존재해 왔다. 하지만 온라인에서의 의견 쓰기와 읽기가 대중화되면서 이러한 표현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포털 범죄뉴스의 댓글공간에서는 범죄에 대한 반감이나 증오가 결합되어 지역에 대한 혐오가 더욱 극대화되는 현상마저 보인다. 이에 포털 범죄뉴스에 분포하는 지역혐오댓글의 비율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고, 범죄발생지역 및 범죄유형에 따라 그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아울러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처럼 우리 사회 지역혐오댓글의 기본적 양태를 파악해보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포털 범죄뉴스의 댓글 중에서 지역혐오댓글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지역혐오댓글의 분포는 범죄발생지역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연구문제 3: 지역혐오댓글의 분포는 범죄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앞서 링크와 펠란(Link & Phelan, 2001)이 제시한 낙인의 구성요소에 대해 논의했다. 라벨링, 스테레오타이핑, 분리하기 등이었다. 이 구성요소들을 분석틀로 하여 지역혐오댓글을 유형화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런 유형의 분포가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를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지역혐오댓글의 유형과 그 지역별 차이를 규명해보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4: 지역혐오댓글의 유형별 분포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5: 지역혐오댓글의 유형별 분포는 범죄발생지역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2) 분석대상

(1) 기사: 댓글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범죄 기사를 먼저 추출할 필요가 있었다. 일단 2017년 한

해의 모든 날짜 중에서 체계적 표집(systematic sampling)을 통해 46일의 날짜를 선정했다. 2017년의 첫 번째 월요일인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8일 간격으로 일자를 선정함으로써 모든 요일을 고르게 포함시켰다. 이렇게 선정된 일자의 네이버뉴스 사건사고 섹션에서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관련 기사를 모두 수집했다. 경찰청(2016)의 범죄통계에 따르면 이들 유형 외에도 지능, 풍속, 특별경제, 마약, 보건, 환경, 교통, 노동, 안보, 선거, 병역 등의 범죄유형이 존재하지만 이번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른바 흉악범죄에 달린 댓글들만을 분석해보려는 취지에서였다. 일단 뉴스기사 중에서 텍스트가 없거나 캡션만 있는 포토뉴스, 카드뉴스, 영상뉴스는 제외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 관련 범죄뉴스도 제외했다. 과도하게 많은 기사가 중첩되기도 하고 주로 가십성으로 다루어지는 까닭이었다. 동일한 범죄사건을 복수의 언론사가 취급한 경우에는 각각의 기사를 모두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 언론사가 날짜를 달리 하며 새로운 기사를 취급한 경우에도 각각의 기사를 모두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한 날짜에 한 언론사가 동일한 내용을 조금씩 업데이트해 복수의 기사가 존재하는 경우(1보, 2보... 형태)에는 실질적으로 한 개의 기사로 간주하고 마지막 기사만을 분석했다. 이렇게 하여 총 687개의 범죄기사가 수집되었다. 하루 평균 14.6개꼴이었다.

- (2) 댓글: 추출된 687개의 범죄기사에 달린 모든 댓글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댓글은 총 20,419개였다. 따라서 기사당 평균 29.7개의 댓글이 존재하는 셈이었다. 그런데 전체 687개의 기사 중 37.0%인 254개의 기사에는 댓글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댓글이 최소 한 개 이상 달린 기사의 수는 433개였다. 따라서 댓글이 최소 한 개 이상 달린 기사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기사당 평균 47.2개의 댓글이 존재하는 셈이었다. 참고로, 각 댓글 아래에 달린 답글은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댓글 아래 답글의 경우 이용자가 특별히 클릭해서 열어 보지 않는 이상 화면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까닭이었다.

3) 분석유목

- (1) 언론사: 수집된 기사 687개를 분류한 결과 22개 언론사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많은 기사가 게재된 언론사는 뉴스통신사인 뉴스1(180개, 26.2%)과 뉴시스(143개, 20.8%)였다. 이어 경향신문(74개, 10.8%), 문화일보(49개, 7.1%), 서울경제(36개, 5.2%), 이데일리(25개, 3.6%), 데일리안(21개, 3.1%), 노컷뉴스(20개, 2.9%), 중앙일보(19개, 2.8%), 아시아경제(15개, 2.2%), 헤럴드경제(14개, 2.0%), 국민일보(13개, 1.9%), 세계일보(13개, 1.9%), 한국경제TV(12개, 1.7%), 강원일보(11개, 1.6%), 매일경제(11개,

1.6%), 동아일보(10개, 1.5%), 조선일보(9개, 1.4%)가 뒤를 이었다. 파이낸셜뉴스(5개, 0.7%), 한국경제(4개, 0.6%), 머니투데이(2개, 0.3%), 한국일보(1개, 0.1%)의 기사도 소수 존재했다.

- (2) 범죄유형: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의 범주가 다소 넓다고 판단되어 여덟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양혜승, 2018 참조). 여덟 가지 유형이란 ①살인·살인미수(192개, 27.9%), ②강도(32개, 4.7%), ③강간·강제추행(39개, 5.7%), ④방화(20개, 2.9%), ⑤절도(172개, 25.0%), ⑥상해·폭행(196개, 28.5%), ⑦협박·공갈·체포·감금·약취·유인(20개, 2.9%), ⑧손괴(16개, 2.3%) 등이었다. 유형별로 기사 수가 상이하게 분포했다. 참고로 여러 유형의 범죄가 한 기사에 함께 포함된 경우에는 기사에서 더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범죄유형으로 코딩했다.
- (3) 범죄발생지역: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총 16개 지역으로 분류했다. 세종시의 경우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어 충남으로 포함시켰다. 기사의 제목이나 본문에 발생 지역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을 취급한 기관(경찰서, 법원)의 소재를 따랐다. 한 기사에 복수의 범죄발생지역이 등장할 경우에도 사건을 담당한 기관의 소재를 따랐다. 기사 내에 행정구역명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국회 앞, 광화문, 청와대처럼 널리 알려진 위치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을 찾아 코딩했다. 서울(138개, 20.1%)의 기사가 가장 많이 등장했다. 이어 부산(97개, 14.1%), 경기(70개, 10.2%), 전북(61개, 8.9%), 충북(56개, 8.2%), 인천(49개, 7.1%), 광주(35개, 5.1%), 대구(33개, 4.8%), 전남(28개, 4.1%), 경남(26개, 3.8%), 강원(23개, 3.3%), 대전(19개, 2.8%), 제주(18개, 2.6%), 경북(13개, 1.9%), 울산(13개, 1.9%), 충남(8개, 1.2%) 순이었다.
- (4) 지역혐오댓글의 유형: 댓글이 지역혐오댓글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판단의 틀이 필요했다. 연구자와 분석원들이 실제 댓글들을 무작위로 수집하여 수차례 논의를 갖고 지역혐오댓글의 유형으로 ①라벨링, ②스테레오타이핑, ③분리하기 등 세 가지 유형을 확정했다. 이 세 가지 유형은 링크와 펠란(Link & Phelan, 2001)이 제시한 낙인의 구성요소에 포함된 것들이었다. 하지만 함께 제시되었던 ‘지위 박탈하기’와 ‘차별하기’는 댓글유형으로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요소들은 행동의 차원이어서 이번 연구처럼 댓글의 ‘표현’을 분석하는 맥락에는 어울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신 이번 연구에서는 새로운 댓글 유형을 독자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추가된 유형은 ④지역단순명기, ⑤조롱하기였다. 이 두 유형은 최근의 지역혐오댓글에서 눈에 띄게 관찰되는 우리 사회의 독특한 혐오표현방법이라는 점에서 독립적인 유형으로 따로 떼어 고찰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지역단순명기’는 단순히 지역 이름만 적어놓는 댓글들이 해당된다(예: ‘전.라.도’, ‘전남이죠?’ 등). 물론 댓글에 지역명을 표기하는 것이 어떻게 지역혐오와 연결될 수 있는지 반문 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의 범죄행위를 다룬 뉴스의 댓글에 지역의 명칭을 표기하는 행 위는 해당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감정을 담고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 다. 즉 이러한 유형의 댓글은 해당 지역민의 폭력성이 이번 범죄로 인해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 는 ‘스테레오타이핑’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분리하기’나 ‘조롱하기’ 등 다른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녹아있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지역단순명기’를 별도의 유형으로 설정했다. 한편 ‘조롱하기’는 해당 지역의 사투리를 흉내내거나 비아냥 혹은 반어법 등을 동원해 조롱하는 댓글들이 해당된다(예: ‘오오미...’, ‘간만에 훈훈한 전라도 기사 잘 봤습니다’ 등). 마지 막으로, 내용상 어떤 유형에도 포함되기 어려운 경우는 ⑥기타로 분류하기로 했다. 포털뉴스에 달린 댓글은 대체로 글자 수가 많지 않아서 어떤 한 유형으로 특정하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유형이 함께 복합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더 지배적인 유형이 무엇인지를 따져 코딩했다. 여섯 가지 댓글유형의 조작적 정의와 사례는 <표 4>와 같다.

표 4. 지역혐오댓글 유형별 조작적 정의 및 사례

유형	조작적 정의	사례
라벨링	해당 지역(민)에 고유한 이름을 붙이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ㅋ흥어ㅋ, 갯깡이 • 감자들 요즘 많이 얽기적이네 • 경삼디언 • 요즘 명칭도가 시끄럽네
스테레오타이핑	해당 지역(민)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언급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도에선 13범은 꺾도 아님 • 인천이 살인사건의 도시네 특하면 인천
분리하기	해당 지역을 뭔가 다른 곳으로 취급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기사는 해외면에 • 다행히 한국은 아니네 휴우..... 해외 기사 잘 보고 갑니다 <경상도 = 한국 속 작은중국>
지역단순명기	단순히 지역 이름만 적어놓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도 • 전라남도 목포쪼? • 역시 부산...ㅈㅈ
조롱하기	사투리흉내, 비아냥 반어법 등을 동원해 조롱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오미... 손상님 살아계실적엔 이런일 더 많았는디 • 아따 우덜이 남인가~~싸게 찡역 갔다오면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할꺼여~~우 덜이 남인가 • 간만에 훈훈한 전라도 기사 잘봤습니다
기타	어떤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지만 지역혐오 뉘앙스가 담긴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즐라도 김대중이 만든 여성부는 진짜 개솔모네 뭐라고 좀 시부려 봐라 여성부가 • 전라도 정권이 드디어 언론 호도 시작했네... 갯삼도 범죄만 집중부각 • 견훤 신검 후백제 완산주 전통

주. 사례에 제시된 댓글들은 띄어쓰거나 맞춤법 등을 무시하고 그대로 옮겨옴.

4) 코더 간 신뢰도(inter-coder reliability)

수집된 기사와 댓글을 두 명의 연구보조원이 절반씩 담당해 분석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코더 간 신뢰도를 따져봤다. 무작위로 기사(151개)를 추출하여 해당 기사에 달린 전체 댓글(2,121개)을 두 인원이 동시에 분석하고 서로 간의 일치 정도를 계산했다. 이 분석 분량은 이번 연구에서 수집한 전체 기사(687개)의 21.98%, 전체 댓글(20,419개)의 10.39%로, 내용분석에서 흔히 요구되는 신뢰도 검증 분량 10%(Wimmer & Dominick, 1997)를 충족하는 수준이었다. 이 신뢰도 검증 과정에서 지역혐오댓글은 200개가 등장했는데, 개별 댓글을 지역혐오댓글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의 여부에 있어서는 100%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단지 지역혐오댓글의 유형을 여섯 가지 중에서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는 일치도가 92%였는데, 우연에 의한 일치를 보정한 신뢰도 검증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cott's $Pi = .902$, Krippendorff's $Alpha = .903$).

4. 연구결과

1) 연구문제 1 분석

연구문제 1은 전체 댓글 중에서 지역혐오댓글의 비율을 고찰하는 것이다. 앞서 연구방법 부분에서 밝혔듯 이번 연구에서 수집된 댓글은 총 20,419개였다. 댓글을 일일이 확인하여 지역혐오 여부를 판단했다. 그 결과 지역혐오댓글로 간주된 댓글의 개수는 850개, 전체 댓글의 4.16% 수준이었다. 이번 연구가 수집한 기사의 수(687개)를 고려했을 때 기사당 평균 1.24개의 지역혐오댓글이 존재하는 셈이었다. 댓글이 한 개 이상 달린 기사(433개)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지역혐오댓글이 기사당 평균 1.96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³⁾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기사에서 지역혐오댓글이 주로 몇 개씩 달리는지 살펴봤다. <표 5>는 그 결과다. 지역혐오댓글이 달리지 않은 기사가 539개(78.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지역혐오댓글이 1개 달린 기사가 79개(11.5%), 2~4개 달린 기사가 35개(5.1%)였다. 지역혐오댓글이 11개 이상 달린 기사는 16개(2.3%)였다.

3) 이번 연구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댓글이 존재하지 않는 기사도 포함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음.

표 5. 지역혐오댓글의 수

지역혐오댓글 수	0개	1개	2~4개	5~10개	11개 이상
기사 수 (%)	539 (78.5)	79 (11.5)	35 (5.1)	18 (2.6)	16 (2.3)

2) 연구문제 2 분석

연구문제 2는 지역혐오댓글의 분포를 범죄발생지역에 따라 고찰하는 것이다. 앞서 연구문제 1 분석에서 드러났듯 지역혐오댓글은 850개였다. 그런데 이 중에는 범죄발생지역과는 무관한 댓글들이 일부 존재했다. 예를 들자면 범죄발생지역이 서울인 기사에서 “흉악한 범죄인 걸 보니 범죄자 고향이 전라도일 것”이라는 유형의 댓글이 달린 경우다. 기사 속 범죄발생지역과는 관련 없는 이런 지역혐오댓글 수는 147개였고, 표적지역은 전라도(101개), 경상도(44개), 충청도(1개), 경기도(1개) 순이었다. 그런데 이번 연구의 분석단위가 기사인 까닭에 기사에 드러난 범죄의 발생지역과 댓글의 표적지역이 불일치할 경우 통계분석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연구문제 2를 비롯해 이후 분석에서는 이처럼 범죄발생지역과 관련 없이 달린 지역혐오댓글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후 분석대상이 되는 지역혐오댓글은 총 703개다.

연구문제 2의 분석을 위해 세 가지 측면의 분석을 시도하기로 했다. 즉 지역혐오댓글의 분포가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고찰하는 데 있어 (1) 지역혐오댓글의 단순합계, (2) 기사 한 개당 달린 지역혐오댓글 수, (3) 기사 한 개당 달린 전체 댓글 중에서 지역혐오댓글의 비율을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했다.

일단 지역별 댓글 수의 단순합계를 고찰했다(〈표 6〉 참조). 지역혐오댓글의 합계에서 특기할 점은 전남(195개, 27.7%)과 전북(207개, 29.4%)에 대한 혐오댓글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이다. 전체 댓글의 합계에서는 전남(572개, 2.8%)과 전북(1,492개, 7.3%)이 서울(4,476개, 21.9%), 경기(4,309개, 21.1%), 부산(3,224개, 15.8%), 충북(2,440개, 11.9%)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6. 범죄발생지역별 지역혐오댓글 분포

지역	기사 수		댓글 수				기사 한 개당 댓글 수(변량분석)					
			전체댓글		지역혐오댓글		전체댓글		지역혐오댓글		지역혐오댓글비율	
			합계	(%)	합계	(%)	<i>M</i>	(<i>SE</i>)	<i>M</i>	(<i>SE</i>)	<i>M</i>	(<i>SE</i>)
서울	138	(20.1)	4,476	(21.9)	18	(2.6)	32.43	(13.16)	0.13	(0.62) b	0.05	(1.51) c
인천	49	(7.1)	1,393	(6.8)	20	(2.8)	28.43	(22.09)	0.41	(1.03) b	1.70	(2.57) bc
경기	70	(10.2)	4,309	(21.1)	10	(1.4)	61.56	(18.48)	0.14	(0.86) b	0.31	(1.97) c
대전	19	(2.8)	377	(1.8)	2	(0.3)	19.84	(35.47)	0.11	(1.66) ab	0.45	(3.63) bc

지역	기사 수		댓글 수				기사 한 개당 댓글 수(변량분석)					
			전체댓글		지역혐오댓글		전체댓글		지역혐오댓글		지역혐오댓글비율	
			합계	(%)	합계	(%)	<i>M</i>	(<i>SE</i>)	<i>M</i>	(<i>SE</i>)	<i>M</i>	(<i>SE</i>)
충남	8	(1.2)	236	(1.2)	0	(0.0)	29.50	(54.66)	0.00	(2.56) ab	0.00	(6.49) bc
충북	56	(8.2)	2,440	(11.9)	28	(4.0)	43.57	(20.66)	0.50	(0.97) b	2.63	(2.29) bc
부산	97	(14.1)	3,224	(15.8)	78	(11.1)	33.24	(15.70)	0.80	(0.73) b	5.86	(2.07) bc
울산	13	(1.9)	83	(0.4)	1	(0.1)	6.38	(42.88)	0.08	(2.01) ab	0.42	(5.13) bc
경남	26	(3.8)	275	(1.3)	13	(1.8)	10.58	(30.32)	0.50	(1.42) ab	2.00	(4.19) bc
대구	33	(4.8)	600	(2.9)	71	(10.1)	18.18	(26.91)	2.15	(1.26) ab	6.68	(3.17) bc
경북	13	(1.9)	53	(0.3)	2	(0.3)	4.08	(42.88)	0.15	(2.01) ab	3.04	(5.13) bc
광주	35	(5.1)	215	(1.1)	51	(7.3)	6.14	(26.13)	1.46	(1.22) ab	33.11	(3.63) a
전남	28	(4.1)	572	(2.8)	195	(27.7)	20.43	(29.22)	6.96	(1.37) a	30.07	(3.52) a
전북	61	(8.9)	1,492	(7.3)	207	(29.4)	24.46	(19.80)	3.39	(0.93) ab	13.72	(2.35) b
강원	23	(3.3)	413	(2.0)	3	(0.4)	17.96	(32.24)	0.13	(1.51) ab	0.07	(4.19) bc
제주	18	(2.6)	261	(1.3)	4	(0.6)	14.50	(36.44)	0.22	(1.71) ab	8.17	(4.03) bc

주. 알파벳 첨자는 Bonferroni 사후검증 결과로, 각 열에서 동일하지 않은 첨자를 가지는 값끼리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그런데 전남과 전북에 대한 혐오댓글을 살펴보면 전남 혹은 전북을 각각 표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전라도” 혹은 “호남”으로 범주화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말하자면 전남에서 발생한 범죄든 전북에서 발생한 범죄든 댓글에서 관찰되는 지역혐오는 대체로 전라도에 대한 혐오였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전라도지역에 함께 속하는 광주에 대한 지역혐오댓글 빈도까지 아울러 고찰해볼 필요가 있었다. 광주(51개, 7.3%)를 함께 포함할 경우 전라도지역에 대한 지역혐오댓글은 453개로, 분석대상으로 삼은 지역혐오댓글(703개)의 절반이 훨씬 넘는 64.4%를 차지했다.⁴⁾

단순 합계에 대한 고찰을 넘어 기사 한 개당 달린 댓글의 수를 비교해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세 차례의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했다. 변량분석 결과에서 첫 번째 열에 제시된 평균값들은 댓글의 지역혐오 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사 한 개당 평균 몇 개의 댓글이 달렸는지를 보여준다. 두 번째 열에 제시된 평균값들은 지역혐오댓글만 추렸을 때 기사 한 개당 평균 몇 개의 지역혐오댓글이 달렸는지를 보여준다. 마지막 열에 제시된 평균값들은 기사 한 개당 달린 전체 댓글 수 대비 지역혐오댓글 수의 백분율이다.⁵⁾

모든 댓글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기사당 댓글 수는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4) 광주·전남·전북을 함께 묶어 전라도로 범주화를 하듯 다른 지역들도 경상도, 충청도 등으로 포괄적인 지역 범주화를 시도할 수도 있겠으나, 경상도 지역의 경우 부산과 대구에 대한 혐오표현이 각 세부지역을 표적으로 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포괄적인 범주화에 어려움이 있음.

5) 마지막 분석의 경우 비율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댓글이 존재하지 않는 기사는 자동적으로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음.

($F[15, 671] = 0.41, p = .98$). 경기지역($M = 61.56, SE = 18.48$) 기사에서 댓글 수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경북지역($M = 4.08, SE = 42.88$) 기사에서 댓글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혐오댓글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기사당 지역혐오댓글 수는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15, 671] = 2.12, p = .008$). 사후검증(Bonferroni) 결과 전남지역($M = 6.96, SE = 1.37$) 기사에는 경기($M = 0.14, SE = 0.86$), 부산($M = 0.80, SE = 0.73$), 서울($M = 0.13, SE = 0.62$), 인천($M = 0.41, SE = 1.03$), 충북($M = 0.50, SE = 0.97$) 기사보다 유의미하게 많은 수의 지역혐오댓글이 달리는 것으로 판명되었다.⁶⁾ 말하자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범죄기사 한 개에 달리는 지역혐오댓글이 1개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 기사당 약 7개의 지역혐오댓글이 달리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기사당 지역혐오댓글의 비율 분석 결과에서도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F[15, 417] = 9.95, p < .001$). 구체적으로, 광주($M = 33.31, SE = 3.63$)와 전남($M = 30.07, SE = 3.52$) 기사에서 지역혐오댓글 비율이 30%를 넘기며 두드러지게 높았고, 전북($M = 13.72, SE = 2.35$)이 뒤를 이었다. 반면에 서울($M = 0.05, SE = 1.51$)과 경기($M = 0.31, SE = 1.97$) 기사의 경우 지역혐오댓글 비율이 두드러지게 낮았다.

연구문제 2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지역혐오댓글이 출현하는 단순합계는 전남과 전북이 다수를 차지했다. 기사당 지역혐오댓글이 달리는 빈도는 전남이 다른 지역보다 유의미하게 많았다. 기사당 지역혐오댓글이 차지하는 비율은 광주와 전남이 다른 지역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따라서 포털뉴스 댓글에서의 지역혐오는 세 가지 측면의 분석 모두에서 일관적으로 전라도지역이 집중적인 표적이 되고 있음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3) 연구문제 3 분석

연구문제 3은 지역혐오댓글의 분포가 범죄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문제 2 분석과 유사한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즉 지역혐오댓글의 분포가 범죄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고찰하는 데 있어 (1) 지역혐오댓글의 단순합계, (2) 기사 한 개당 달린 지역혐오댓글 수, (3) 기사 한 개당 달린 전체 댓글 중에서 지역혐오댓글의 비율을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6) 충남 기사의 경우 지역혐오댓글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댓글 수 자체가 적은 까닭에 전남 기사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했다. <표 7>은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7. 범죄유형별 지역혐오댓글 분포

범죄유형	기사 수		댓글 수				기사 한 개당 댓글 수(변량분석)					
			전체댓글		지역혐오댓글		전체 댓글		지역혐오댓글		지역혐오댓글비율	
			합계	(%)	합계	(%)	M	(SE)	M	(SE)	M	(SE)
살인·살인미수	192	(27.9)	9,395	(46.0)	454	(64.6)	48.93	(11.02)	2.36	(0.53)	6.65	(1.42)
강간·강제추행	39	(5.7)	717	(3.5)	55	(7.8)	18.38	(24.46)	1.41	(1.17)	8.02	(2.94)
손괴	16	(2.3)	2,029	(9.9)	18	(2.6)	126.81	(38.19)	1.13	(1.83)	2.35	(5.02)
협박·공갈 등	20	(2.9)	249	(1.2)	19	(2.7)	12.45	(34.16)	0.95	(1.63)	5.87	(5.55)
상해·폭행	196	(28.5)	6,309	(30.9)	97	(13.8)	32.19	(10.91)	0.49	(0.52)	3.12	(1.34)
강도	32	(4.7)	268	(1.3)	9	(1.3)	8.38	(27.00)	0.28	(1.29)	7.70	(3.92)
절도	172	(25.0)	1,294	(6.3)	47	(6.7)	7.52	(11.65)	0.27	(0.56)	7.03	(2.15)
방화	20	(2.9)	158	(0.8)	4	(0.6)	7.90	(34.16)	0.20	(1.63)	3.84	(5.02)

주. 알파벳 첨자는 Bonferroni 사후검증 결과로, 각 열에서 동일하지 않은 첨자를 가지는 값끼리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지역혐오댓글의 단순합계에서 특기할 점은 살인·살인미수(454개, 64.6%) 기사에서 지역 혐오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이 등장한 것이다. 사실 살인·살인미수 기사의 경우 지역혐오를 떠나서 다른 범죄유형보다 더 많은 댓글이 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9,395개, 46.0%).

기사 한 개당 달린 댓글의 수를 비교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거기서 도출된 평균값들을 들여다보았다. 댓글의 지역혐오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든 댓글을 대상으로 할 경우, 기사당 댓글 수는 범죄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7, 679) = 2.10, p = .04$). 하지만 사후검증(Bonferroni) 결과 손괴($M = 126.81, SE = 38.19$)와 절도($M = 7.52, SE = 11.65$) 사이의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에 근접한 것을 제외하고는($p = .08$) 범죄유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혐오댓글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기사당 지역혐오댓글 수는 범죄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7, 679) = 1.43, p = .19$). 물론 살인·살인미수($M = 2.36, SE = 0.53$)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역혐오댓글이 달리고, 반면에 방화($M = 0.20, SE = 1.63$)와 절도($M = 0.27, SE = 0.56$) 기사에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 지역혐오댓글이 달리는 경향이 발견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기사당 지역혐오댓글의 비율에서도 범죄유형별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F(7, 425) = .84, p = .56$). 지역혐오댓글의 비율이 강간·강제추행($M = 8.02, SE = 2.94$)과 강도($M = 7.70, SE = 3.92$) 기사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손괴($M = 2.35, SE = 5.02$)와

상해·폭행($M = 3.12$, $SE = 1.34$) 기사에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범죄유형 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연구문제 3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지역혐오댓글의 단순합계는 살인이나 살인미수 뉴스에서 가장 높았다. 기사당 지역혐오댓글이 달리는 개수는 살인이나 살인미수 뉴스에서 더 많이 관찰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기사당 지역혐오댓글이 차지하는 비율에서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그리고 강도 뉴스가 더 높은 경향이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살인이나 살인미수 범죄의 경우 해당 범죄의 흉악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주목을 반영해 해당 범죄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지역혐오댓글이 흔하게 관찰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는 범죄유형을 불문하고 지역혐오댓글이 고르게 출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4) 연구문제 4 분석

연구문제 4는 지역혐오댓글의 유형 분포를 고찰하는 것이다. 앞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지역혐오댓글은 703개였다. 이 댓글들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의 첫 번째 행은 각 유형의 단순합계를 제시한 것이다. 스테레오타이핑(208개, 29.6%)이 가장 많았고, 이어 지역단순명기(183개, 26.0%), 조롱하기(125개, 17.8%), 분리하기(94개, 13.4%), 라벨링(83개, 11.8%)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표 8. 지역혐오댓글 유형별 분포

댓글유형	라벨링	스테레오타이핑	분리하기	지역단순명기	조롱하기	기타
합계 (%)	83 (11.8)	208 (29.6)	94 (13.4)	183 (26.0)	125 (17.8)	10 (1.4)
M (SE)	0.12 _{bc} (0.03)	0.30 _a (0.07)	0.14 _{cd} (0.05)	0.27 _{ab} (0.08)	0.18 _{abc} (0.05)	0.01 _d (0.01)

주. 알파벳 첨자는 Bonferroni 사후검증 결과로, 동일하지 않은 첨자를 가지는 값끼리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표의 두 번째 행은 기사 한 개당 각 유형의 댓글이 평균 몇 개씩 달리는지, 그리고 댓글유형별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 반복측정 변량분석(One-Way 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한 결과다. 댓글유형 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F(5, 682) = 5.63$, $p < .001$, $\text{partial } \eta^2 = .04$).⁷⁾ 역시 스테레오타이핑($M =$

7) 이 연구에서 모든 반복측정 변량분석은 다변량 접근방법(multivariate approach)을 취함. 다변량 분석은 정규성

0.30, $SE = 0.07$)이 지역단순명기($M = 0.27$, $SE = 0.08$)과 더불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스테레오타이핑은 라벨링($M = 0.12$, $SE = 0.03$) 및 분리하기($M = 0.14$, $SE = 0.05$)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4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하다. 단순합계로 모든 기사당 지역혐오 댓글의 수로 보면, 범죄뉴스 댓글에서 관찰되는 지역혐오댓글은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이핑에 기반을 둔 유형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거기에 더해 주목해야 할 유형은 지역단순명기 유형이었다. 지역단순명기 유형은 스테레오타이핑에 이어 빈번하게 관찰되는 유형이었다. “전라도”, “전라남도 목포죠?”, “역시 부산...ㅋㅋ”처럼 지역을 단순하게 호명함으로써 지역혐오를 드러내는 표현 방식이 대중화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5) 연구문제 5 분석

연구문제 5는 지역혐오댓글의 유형 분포가 범죄발생지역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범죄발생지역별로 각 유형의 댓글이 기사당 평균 몇 개씩 달렸는지를 분석했다. <표 9>는 그 결과를 보여준다. 표에서 평균값들은 혼합모델 반복측정 변량분석(Mixed Model Repeated Measures ANOVA)을 통해 도출된 것이다. 이 분석에서 범죄발생지역은 개체 간 변인으로, 그리고 여섯 가지 댓글유형은 개체 내 변인으로 투입했다. 그 결과, 범죄발생지역 주효과($F[15, 671] = 2.12$, $p < .01$, $\text{partial } \eta^2 = .05$)와 댓글유형 주효과($F[5, 667] = 3.45$, $p < .01$, $\text{partial } \eta^2 = .03$)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범죄발생지역과 댓글유형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한 수준에 근접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F[75, 3355] = 1.25$, $p = .07$, $\text{partial } \eta^2 = .03$).

표 9. 범죄발생지역별 지역혐오댓글 유형 분포

지역	혐오 댓글수	라벨링			스테레오타이핑			분리하기			지역단순명기			조롱하기			기타		
		합계	M	(SE)	합계	M	(SE)	합계	M	(SE)	합계	M	(SE)	합계	M	(SE)	합계	M	(SE)
서울	18	0	0.00	(0.08)	15	0.11	(0.17)	0	0.00	(0.12)	1	0.01	(0.18)	2	0.01	(0.11)	0	0.00	(0.02)
인천	20	4	0.08	(0.13)	12	0.24	(0.28)	0	0.00	(0.20)	4	0.08	(0.30)	0	0.00	(0.18)	0	0.00	(0.03)
경기	10	2	0.03	(0.11)	3	0.04	(0.23)	1	0.01	(0.16)	4	0.06	(0.25)	0	0.00	(0.15)	0	0.00	(0.02)
대전	2	0	0.00	(0.21)	0	0.00	(0.45)	1	0.05	(0.31)	1	0.05	(0.49)	0	0.00	(0.29)	0	0.00	(0.04)

(normality), 동질성(homogeneity)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는데 내용분석에 기반을 둔 이번 연구자료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다변량 분석 시 F값 산출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Wilk's Lambda(λ) 대신 전제 조건에 가장 민감하지 않은 Pillai's Trace를 활용함.

지역	협오 댓글수	라벨링			스테레오타이핑			분리하기			지역단순명기			조롱하기			기타		
		합계	M	(SE)	합계	M	(SE)	합계	M	(SE)	합계	M	(SE)	합계	M	(SE)	합계	M	(SE)
충남	0	0	0.00	(0.32)	0	0.00	(0.69)	0	0.00	(0.48)	0	0.00	(0.75)	0	0.00	(0.44)	0	0.00	(0.07)
충북	28	3	0.05	(0.12)	17	0.30	(0.26)	0	0.00	(0.18)	6	0.11	(0.28)	2	0.04	(0.17)	0	0.00	(0.02)
부산	78	15	0.15	(0.09)	28	0.29	(0.20)	6	0.06	(0.14)	17	0.18	(0.22)	12	0.12	(0.13)	0	0.00	(0.02)
울산	1	0	0.00	(0.25)	1	0.08	(0.54)	0	0.00	(0.38)	0	0.00	(0.59)	0	0.00	(0.35)	0	0.00	(0.05)
경남	13	0	0.00	(0.18)	8	0.31	(0.38)	1	0.04	(0.27)	3	0.12	(0.42)	1	0.04	(0.24)	0	0.00	(0.04)
대구	71	14	0.42	(0.16)	28	0.85	(0.34)	5	0.15	(0.24)	13	0.39	(0.37)	9	0.27	(0.22)	2	0.06	(0.03)
경북	2	0	0.00	(0.25)	0	0.00	(0.54)	0	0.00	(0.38)	0	0.00	(0.59)	2	0.15	(0.35)	0	0.00	(0.05)
광주	51	3	0.09	(0.15)	8	0.23	(0.33)	7	0.20	(0.23)	15	0.43	(0.36)	17	0.49	(0.21)	1	0.03	(0.03)
전남	195	21	0.75	(0.17)	54	1.93	(0.37)	32	1.14	(0.26)	49	1.75	(0.40)	34	1.21	(0.24)	5	0.18	(0.03)
전북	207	18	0.30	(0.12)	32	0.52	(0.25)	41	0.67	(0.18)	69	1.13	(0.27)	45	0.74	(0.16)	2	0.03	(0.02)
강원	3	3	0.13	(0.19)	0	0.00	(0.41)	0	0.00	(0.29)	0	0.00	(0.44)	0	0.00	(0.26)	0	0.00	(0.04)
제주	4	0	0.00	(0.21)	2	0.11	(0.46)	0	0.00	(0.32)	1	0.06	(0.50)	1	0.06	(0.29)	0	0.00	(0.04)

위 분석에서 범죄발생지역 주효과가 도출된 것은 연구문제 2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그리고 댓글유형 주효과가 도출된 것은 연구문제 4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범죄발생지역과 댓글유형 사이의 상호작용효과가 도출되지 않은 것은, 연구문제 2의 결과가 보여 주듯 지역협오댓글 대다수가 전라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분석 대상 지역협오댓글 703개 중 64.4%인 453개). 따라서 전라도지역을 대상으로 한 협오댓글만을 따로 놓고서 그 댓글들이 어떤 유형분포를 보여주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어차피 다른 지역에 대한 협오댓글의 빈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었다.

광주, 전남, 전북을 함께 묶었을 때 전라도지역에 대한 협오댓글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지역단순명기(133개, 29.4%)였다. 이어 조롱하기(96개, 21.2%), 스테레오타이핑(94개, 20.8%), 분리하기(80개, 17.7%), 라벨링(42개, 9.3%) 순이었다. 앞서 연구문제 4에서 지역을 불문하고 댓글유형을 분석했을 때는 스테레오타이핑 유형이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전라도지역에 대한 협오댓글의 경우 지역단순명기 유형과 조롱하기 유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댓글에 단순한 지명(예: “전.라.도”, “전라도죠?” 등)을 남겨 지역협오를 드러내는 표현방식, 그리고 전라도 사투리를 흉내 낸다든가 비아냥거리는 등의 조롱하는 표현방식을 통해 전라도지역에 대한 지역협오를 드러내는 것이 전라도를 표적으로 한 협오댓글들의 두드러진 특성이라 하겠다.

5. 논의

이번 연구는 포털 범죄뉴스의 댓글공간이 지역혐오를 담은 표현들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우리 포털 범죄뉴스에 지역혐오댓글이 실제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 어떤 지역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어떤 범죄유형을 다룬 뉴스에서 지역혐오댓글이 자주 등장하는지 등을 분석했다. 아울러 지역혐오댓글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혐오의 대상지역에 따라 유형 차이가 존재하는지도 분석했다. 이를 위해 2017년 네이버뉴스에 게재된 범죄 기사를 추출하고 그 기사들에 달린 댓글들을 분석했다. 이번 연구가 발견한 내용과 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연구 결과는 포털 범죄뉴스의 댓글공간이 비이성적이고 악의적인 지역혐오 표현들로 오염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살인이나 살인미수를 다룬 뉴스에서 지역혐오댓글이 더 빈번하게 등장하는 경향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사실상 지역혐오댓글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손괴 등 다양한 범죄유형 전반에 걸쳐 어떤 범죄뉴스에서건 관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혐오를 담은 댓글은 범죄사건의 경중이나 흉악성 여부에 따라 그 출현빈도가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범죄뉴스에서 보편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번 연구가 표집한 댓글 중에서 지역혐오 내용을 담은 댓글은 전체의 4.16% 수준이었다. 혹자는 댓글 100개 중에서 지역혐오 내용을 담은 댓글이 4개 남짓이라면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 않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댓글이 존재한다는 것의 사회적 의미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범죄뉴스의 댓글이 범죄의 흉악성에 대한 비난, 해당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개인에 대한 질책을 담아내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사회적 공론장으로서 뉴스 댓글의 바람직한 기능일 수도 있다. 하지만 범죄 자체 혹은 범죄자 개인에 대한 비난과 질책을 벗어나 특정 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감정 그리고 반감과 증오를 표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혐오를 담은 댓글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혐오 내용을 담은 댓글이 단 1% 혹은 0.1%에 불과하다고 해도 합리성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비이성적이고 악의적인 지역혐오 표현들이 주로 특정 지역을 표적으로 삼고 있음을 중요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지역혐오댓글 중에서 전라도지역을 대상으로 한 혐오댓글은 무려 64.4%를 차지했다. 추가로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것은, 범죄발생지역과는 무관하게 전라도지역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댓글들이 적지 않았는데, 분석의 곤란함으로 인해 그러한 댓글들은 아예 포함되지도 않은 수치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발생한 범죄의 기사 아래에 전라도를 혐오하는 댓글이 달린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범죄자가

분명 전라도 사람일 것이라는 막연한 혐오를 담은 것들이었다. 따라서 그런 종류의 댓글들까지 포함한다면 전라도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혐오댓글의 비율은 훨씬 더 높아진다⁸⁾. 더군다나 이번 연구에서는 댓글만 분석했을 뿐, 댓글에 달린 답글까지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만약 답글까지 함께 분석에 포함할 경우 전라도지역에 대한 혐오댓글의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짐작된다.

조금 과하게 표현한다면 포털뉴스 댓글공간에서 빛어지고 있는 지역혐오는 전라도지역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이고 무조건적인 혐오라고 볼 수도 있다. 범죄는 어느 지역에서건 발생한다. 특히 전라도지역의 인구 대비 범죄발생률은 전국 평균과 비교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며, 살인, 절도, 폭행 등 다양한 범죄유형으로 분류했을 때에도 그 양상은 비슷하다(양혜승,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도지역을 범죄다발지역으로 몰거나 흉흉한 범죄가 유독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매도하는 혐오표현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비록 이번 연구가 2017년이라는 특정한 기간을 조사대상으로 삼았지만 전라도지역에 대한 혐오표현의 문제는 긴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뚜렷하게 드러난 전라도지역에 대한 지역혐오표현의 문제는 그동안 지역감정 혹은 지역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해온 불편한 진실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셋째, 이번 연구가 우리 사회 지역혐오댓글들의 유형을 분류해본 것도 나름대로의 학문적 의의가 있다. 링크와 펠란(Link & Phelan, 2001)이 제시한 낙인의 구성요소 중 라벨링, 스테레오타이핑, 분리하기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을 차용하고, 이에 덧붙여 우리 사회 지역혐오댓글들의 독특한 표현양상을 반영하여 지역단순명기, 조롱하기와 같은 두 가지 유형을 추가로 설정했다. 이번 연구에서 이 다섯 가지 댓글유형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결과를 얻음으로써 이 분석들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주목할 점은 추가적으로 설정된 지역단순명기 유형과 조롱하기 유형이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스테레오타이핑, 분리하기, 라벨링 등을 통해 특정 지역을 낙인찍는 고전적인 방식과 더불어, 우리 사회 포털의 댓글공간에서 지역혐오를 드러내는 방식은 지역에 대한 단순호명과 조롱이 대세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라도지역에 대한 혐오댓글의 경우 이 두 가지 유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발견했다. “전.라.도”, “전라도죠?”와 같은 단순호명은 “그 지역은 그런 일이 발생하고도 남을 지역”이라거나 “역시 또 그 지역”이라는 지역비하, 우리와는 다른 그들이라는 멸시를 복합적으로 담고 있는 혐오감정의 발현이다. 전라도 사투리를 흉내내내고 비아냥거리는 등의 조롱 또한 언어를

8) 기사에 드러난 범죄발생지역과 무관한 지역에 대한 혐오 내용을 표현한 댓글은 147개였고 이 중에서 전라도지역에 대한 혐오댓글은 101개(68.7%)였음.

통해 발휘할 수 있는 지극히 악의적인 혐오표현이라 하겠다.

지역에 대한 단순호명과 조롱이 댓글공간을 지배하는 현상은 댓글공간에서의 지역혐오가 일종의 유희로 자리 잡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악의적 표현이 유희가 된다는 것은 그런 악의적 표현이 거리낌 없는 일상이 되고 동시에 죄의식은 무디어진다는 역설일 것이다. 이번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심각성은 바로 그 지점에 있다. 공론장이 유희의 수단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지만 혐오표현의 맥락에서 접근할 경우 이야기는 사뭇 달라진다. 윤하나와 김상호(2018)가 언급한 ‘혐오의 일상화’도 이런 우려와 궤를 같이 한다.

혹자는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 달리는 지역혐오댓글이 단지 소수의 인원에 의해 발생하는 일탈적 행위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소수의 일탈적 행위가 온라인의 공론장 기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소수의 일탈적 행위라고 치부하기엔 특정 지역, 특히 전라도지역에 대한 혐오표현이 온라인에서 널리 대중화되고 일상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다. 혐오표현이 일상화된 사회, 그리고 특정 지역이 집중적으로 그 표적이 되고 있는 사회를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는 없다. 한 사회에서 특정 지역을 게토(ghetto) 혹은 현대판 향소·부곡으로 취급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비이성적인 혐오표현이 다수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에 버젓이 출몰하는 사회는 분명 병든 사회다. 온라인상의 지역혐오표현들이 주로 젊은 누리꾼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런 혐오표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우리 사회의 젊은 누리꾼들이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혐오표현의 공격적 사용자가 될지도 모를 일이며, 나아가 작금의 지역혐오가 아랫세대로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이정복, 2013).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을 규제하려는 시도들이 있어온 것은 사실이다. 2013년 6월 안효대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는 인종 및 출신지를 근거로 공연히 사람을 혐오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2015년 6월 진영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특정 지역·사람을 비하·모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입법화되지 못했고 현재 지역과 관련된 혐오표현을 별도로 규정하는 실정법은 존재하지 않는다(홍성수 등, 2016). 물론 이번 연구의 목적이나 범위가 지역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방안을 논의하거나,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각종 입법을 촉구하려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미 폭력적인 수준까지 도달한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들에 대한 각성을 유도하고 정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골몰할 때라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입법을 통해서든 아니면 각종 주체들의 자율적인 노력을 위해서든 무언가 방안 찾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번 연구의 여러 발견과 함의와 더불어 이번 연구의 한계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이

번 연구가 수집한 댓글의 수가 비교적 적었다. 2만 여 개라는 적지 않는 댓글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추려낸 지역혐오댓글의 수를 고려했을 때 통계적으로 강력한 분석을 시도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더 많은 댓글을 수집하고 그 결과를 더욱 정밀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번 연구에서는 시도하지 않았지만 댓글에 달린 답글까지 모두 분석에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또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시도해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도 시도해볼직하다.

둘째, 이번 연구는 지역혐오댓글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우리 사회에서 독특하게 발견되는 지역혐오댓글 유형으로 지역단순명기와 조롱하기 등을 포함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번 연구가 도입한 댓글유형이 충분히 상호배타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번 연구에서는 낙인 개념의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그 과정에서 댓글유형을 분류하는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지역혐오댓글을 더욱 정밀하게 분류해볼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 위한 이론적 고민이 지속되어야 하겠다. 댓글유형을 내용이나 형식 등 다양한 측면으로 분류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셋째, 포털뉴스에서는 '가장 많이 본 뉴스' 혹은 메인판에 게재된 뉴스에 클릭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그런 뉴스에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네이버 뉴스에 날짜별로 아카이브된 기사들을 추출하면서 각 기사가 '가장 많이 본 뉴스'로 소개되었는지, 메인판에 게재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지는 못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포털뉴스의 구조를 함께 반영하는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에서 지역혐오 내용을 담은 댓글이 4.16%였는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댓글이 합리적이고 건전한 비판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댓글 분석 과정에서 우리 포털뉴스의 댓글공간이 지역혐오뿐만 아니라 여성혐오, 남성혐오, 노인혐오 등을 담은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로 오염되어 있음을 안타깝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표적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은 이번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다양한 표적집단 각각에 대한 혐오표현이 어떤 비율과 방식으로 스며들어 있는지, 그 연관성은 어떠한지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 연구가 작은 기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는 나름대로 의의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지역혐오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리고 혐오표현에 대한 학문적 고찰이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저널리즘 혹은 매스컴 분야 연구에서 작은 시도를 담아내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재원·김선자 (2012). 인터넷 뉴스기사에 달린 댓글의 효과 연구:이슈의 관여도와 의견의 일치성 여부를 고려해서. <한국언론학보>, 56권 2호, 143-166.
- 경찰청 (2016). 경찰범죄통계.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97>
- 김민정 (2014).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언론과 법>, 13권 2호, 131-163.
- 김병철 (2004). 인터넷 신문 댓글의 상호작용적 특성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4호, 147-180.
- 김수아 (2015).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페미니즘연구>, 15권 2호, 279-317.
- 김용석·김창덕 (2009, 1, 15). 10개 중 4개는 기사 주제와 관계없는 엉뚱 댓글. <동아일보>, 4면.
- 김은미·선유화 (2006). 댓글에 대한 노출이 뉴스 수용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50권 4호, 33-64.
- 김종구 (2017, 2, 21). 혐오표현. <한겨레신문>.
- 김형경·박보람·박승환 (2012).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그 옹호의 논리를 넘어서: 표현의 자유론 비판과 시민권의 재구성. <공익과 인권>, 12호, 215-249.
- 노재철·고준기 (2016). hate-speech 등 인종주의적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의 동향과 시사점. <법학논총>, 40권 3호, 3-31.
- 박용숙 (2018).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방법의 모색을 위한 시론적 연구. <법학논총>, 38권 2호, 27-64.
- 박지원 (2016). 혐오표현의 제제 입법에 관한 소고: 주요국 입법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27권 3호, 103-136.
- 박창호 (2012). 인터넷 댓글과 폭력성. <사회이론>, 42호, 93-122.
- 박혜영 (2015).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16권 3호, 137-169.
- 양혜승 (2008). 인터넷 뉴스 댓글의 견해와 품질이 독자들의 이슈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2권 2호, 254-281.
- 양혜승 (2018). 지역혐오와 포털뉴스: 네이버뉴스 범죄보도비율의 지역 간 차이 분석.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2권 2호, 73-101.
- 여은호·박경우 (2011). 인터넷 뉴스 댓글이 독자의 기사 인식에 미치는 인지적 영향: 접근성(accessibility)과 적용성(applicability)을 중심으로. <언론학연구>, 15권 2호, 237-259.
- 오미영 (2009). 혼혈인에 대한 낙인연구: 혼혈인에 대한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낙인효과. <한국사회복지학>, 61권 2호, 215-246.
- 윤하나·김상호 (2018). 욕망을 추동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거리와 혐오의 일상화. <언론과 사회>, 26권 1

호, 5-33.

- 이승현 (2016). 여성혐오적 표현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이화젠더법학*, 8(2), 1-34.
- 이은주 (2011). 지각된 편향인가 편향된 지각인가? 댓글의 내용, 여론에 대한 인식과 이슈 관여도에 따른 기사의 논조 지각. *한국언론학보*, 55권 3호, 179-198.
- 이은주·장윤재 (2009). 인터넷 뉴스 댓글이 여론 및 기사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지각과 수용자의 의견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보*, 53권 4호, 50-71.
- 이정념 (2016). 온라인 혐오발언과 의사표현의 자유: 유럽인권재판소의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37-56.
- 이정복 (2013). 사회적 소통망(SNS)의 지역 차별 표현. *어문학*, 120집, 55-83.
- 이종일 (2017). 사례 분석을 통한 한국 혐오 스피치의 특징. *사회과교육연구*, 24권 4호, 51-73.
- 이주영 (2015).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증오선동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60권 3호, 195-227.
- 임인숙·김민주 (2012). 한국 다이어트 서바이벌 프로의 비만 낙인 재생산: '빅토리'와 '다이어트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8권 4호, 1-38.
- 장소연 (2017).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혐오의 문화정치>.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7).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7 한국>.
<http://www.kpf.or.kr/site/kpf/research/selectMediaPdsView.do?seq=574323>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8). 포털 뉴스서비스 및 댓글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 인식 조사. (미디어 이슈 4권 5호). <http://www.kpf.or.kr/site/kpf/research/selectMediaPdsView.do?seq=574592>
- 한기덕 (2017, 12월). <이주민 혐오표현(hate speech)에 대한 연구: 외국인노동자와 조선족 뉴스댓글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정기사회학대회 논문집*. 서울: 서울대학교.
- 한희정 (2016). 이주여성에 관한 혐오 감정 연구: 다음사이트 '아고라'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75호, 43-79.
- 홍성수 (2015). 혐오표현의 규제: 표현의 자유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규제대안의 모색. *법과 사회*, 50호, 287-336.
- 홍성수·김정혜·노진석·류민희·이승현·이주영·조승미 (2016).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Balsam, K. F., & Mohr, J. J. (2007). Adaptation to sexual orientation stigma: A comparison of bisexual and lesbian/gay adul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3), 306-319.

- Cahill, S. E., & Eggleston, R. (1995). Reconsidering the stigma of physical disability: Wheelchair use and public kindness. *Sociological Quarterly*, 36(4), 681-698.
- Corrigan, P. (2004). How stigma interferes with mental health care. *American Psychologist*, 59(7), 614-625.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 117-140.
- Goffman, E. (1963).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Herek, G. M., Gillis, J. R., & Cogan, J. C. (2009). Internalized stigma among sexual minority adults: Insights from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1), 32-43.
- Link, B. G., & Phelan, J. C. (2001). Conceptualizing stigma. *Annual Review of Sociology*, 27(1), 363-385.
- Link, B. G., Struening, E. L., Neese-Todd, S., Asmussen, S., & Phelan, J. C. (2001). Stigma as a barrier to recovery: The consequences of stigma for the self-esteem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es. *Psychiatric Services*, 52(12), 1621-1626.
- Puhl, R. M., & Heuer, C. A. (2009). The stigma of obesity: A review and update. *Obesity*, 17(5), 941-964.
- Wimmer, R. D., & Dominick, J. R. (1997). *Mass media research: An introduction* (5th ed.). Belmont, CA: Wadsworth.

최초 투고일 2018년 8월 16일
게재 확정일 2018년 11월 30일
논문 수정일 2018년 12월 2일

Abstract

Hate speech toward specific regions in Korea: Content analysis of comments posted to crime news stories in Naver

Hyeseung Yang

Associate Professor, Kyungsoong University

Online hate speech toward specific regions is getting prevalent in Korea. In this regard, this study explored the proportion of hate speech comments posted to crime news stories in portal sites and inspected the target regions of the hate speech comments. Additionally, this study categorized the hate speech comments to explore what categories were dominant according to target regions. Among all the crime news reports appearing in Naver in 2017, 687 were extracted and 20,419 comments posted to the reports were all content analyzed. The data showed that the number of hate speech comments was 850, representing 4.16% of the entire comments analyzed. The most serious target region was Jeolla-do, with 64.4% of the hate speech comments being toward that region. In terms of the hate speech types, stereotyping the individuals in the target regions was most frequent, followed by simple writing down of target regions' names, mocking the target regions, separating the target regions from other regions, and labeling the target regions or the individuals. For hate speech comments towards Jeolla-do, though, two types were relatively prevalent, such as simple writing down of the region's name and mocking the region. Consequently,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were discussed.

Keywords: Portal News, Comments, Hate Speech, Regions, Content Analysis